



김기문 중소기업회장, 저출생위원회로부터 감사패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에서 김기문 회장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영환)로부터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9개 중소기업 협·단체가 참여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하고, 저출생 극복 산업계 릴레이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업무분담 동료 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김기문 회장은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바랍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암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암관리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암관리사업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지역암센터(센터장 정연준) 주관으로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암관리 전문인력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보다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교육에서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다채로운 과정이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롯데GRS, 남원시에 ‘햄버칸 햄버거 교환권 후원

남원시는 지난 26일 롯데GRS(주)(대표 차우철)가 학교 밖 청소년의 결식 예방을 위한 ‘햄버칸 햄버거 세트 제품교환권 100매(73만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4월 22일 롯데리아 남원점(대표 주정철)의 1차 후원에 이어 진행된 2차 후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맹점주가 지역사회 또는 특정 단체에 제품을 기부하면 본사에서 동일한 수량만큼 기부에 동참하는 1: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에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햄버거 교환권 100매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차우철 대표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지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농협 여성대학생들과 경주시 문화탐방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28일, 제2기 남원농협 여성대학생 90여 명과 경주시와 불국사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여행은 여성대학생들에게 추억의 수학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국사 해설 투어, 첨성대 일일 탐방, 달고나 게임 등을 비롯해 학산 시절의 간식거리 등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남원농협 여성대학은 여성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남원농협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100명이 입학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총 13주 과정으로 여성 리더십 건강·가정 관리 및 농협 사업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작은 정성, 큰 위로 되길”

익산장로합창단, 전북도청에 산불피해 성금 427만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익산장로합창단이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427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화 율촌교회 장로(합창단 서기), 이은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훈훈한 온정을 함께 나눴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를 통해 도내 산불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구 지원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장로합창단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실천적 나눔을 보여준 익산장로합창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사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고창군-서부보훈지청, 업무협약 체결·독립운동가 묘소 참배

고창군이 27일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장효정)과 함께 일상 속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운동가 묘소를 참배했다.

협약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보훈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인 신종주 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신종주 지사는 1906년 최익현 의병장을 찾아가 군자금과 군수품을 지원하고,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서 참모관으로 활동하며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고창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서부보훈지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 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선운산농협 수박작목반 고창 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 후 첫 출하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 수박작목반에서 고창수박 지리적표시제 도입 후 첫 출하된 수박이 당일 출하 경락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출하된 고창수박은 선운산농협 수박작목반이 1차 유기물 사용, 토양검정, 수질 등을 심사하고, 2차로 농약잔류검사, 병해충관리 등을 심사하여 생산한 프리미엄 수박으로 지난 28일 도매시장에 공급되어 높은 관심 속에 거래되며 고창수박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은 “이번 출하 성과는 단순한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고창수박의 탁월한 품질과 더불어 지리적표시제 도입이 소비자들에게 고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창군이 지난 해 등록한 지리적표시제(GI : Geographical Indication)는 특정지역의 자연적·인문적 특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는 제



도로, 고창군은 향후 수박 외에도 주요 특산물에 지리적표시제를 확대 적용해 고품질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동학혁명기념 전국 축구·배구대회 성료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들과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축구대회와 전국 배구대회가 각각 정읍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의 4개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축구대회는 정읍시체육회 주최, 정읍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의 50·60대 축구 동호인 26개 팀, 600여 명이 참가해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배구대회는 정읍시배구협회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48개 팀, 약 7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두 대회 모두 조별예선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들은 승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우정을 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설천면 무인민원발급기 전면 교체

무주군 설천면이 지난 9일 행정복지센터와 구천동농협 내 무인민원발급기(이용시간 08:30~18:30)를 전면 교체했다. 타 지자체로부터 ‘유류 기기 무상 대부’ 형식으로 양수받아 약 4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새롭게 설치된 기기는 △접자 모니터, △음성 안내, △화면 높이 조절, △휠체어 접근 공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기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능이 추가되면서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

박종희 무주군 설천면장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임실경찰서 방문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27일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를 방문하여 현장 직원 격려와 치안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역치안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김철문 청장은 임실의 치안 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등을 점검하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김청장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및 선제적 치안 환경 진단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업무유공자인 수사과 박종호 순경, 오수지구대 조재민 순경, 경무과 강종민 행정관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김철문 전북청장은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북기업사랑 도민회, 복지재단에 500만원 성금

전북 기업사랑 도민회는 27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사용돼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과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봉사 활동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송전중고등학교 교서 교정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남원 도동동지사협, 시청커피에 착한가게 환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선자 등장,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27일, 1일 17구 소통행정 활동을 통해 발굴한 시청커피(대표 안희명)에 착한가게 43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전달식에서 안희명 대표는 “착한가게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펼쳐

남원시 죽항동(동장 임점숙)은 28일, 시 통합돌봄과(과장 김혜정)와 스마트농생명과(과장 김옥현) 등과 농번기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기계작업이 어려워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명이나물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